

統合된 性格의 具體的 特性에 관한 研究

高明奎*

〈 목 차 〉

- | | |
|---------------------|---------------|
| I. 서론 | 4. 미래 지향성 |
| II. 건강한 성격과 통합성 | 5. 진정한 자발적 표현 |
| III. 통합된 성격의 구체적 특성 | IV. 요약 및 결론 |
| 1. 과제에 대한 열중성 | 참고문헌 |
| 2. 강한 자주적 태도 | Abstract |
| 3. 운동에 대한 책임감 | |

I. 서론

성격의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성격발달은 일면 매우 한정된 場에서 점차 광범한 생활영역에 대해서 적응능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 말을 바꾸면 역할의 분담과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반응체계는 주체, 즉 자아의 강력한 통제기능하에 서로 조정되고 통합되어 일정한 생활태도 속에 집약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이런 통합기능이 충분히 작용하지 않으면 자아는 공간적 定位와 시간적 一貫性을 잃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붕괴되어 지리멸렬한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인지에서의 統覺과 태도에서의 동일성이 가능해지고, 또 성격에 일정한 統一과 個性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성격의 통합성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또 이런 통합된 성격에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지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통합된 성격의 특성을 내면적 구조론적 관점(고명규, 1999)에서가 아니라, 외현적 구체적 관점에서 탐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역으로 구체적인 성격특성을 통해서 한 개인의 성격의 통합정도와 정신건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준거자료로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서 자아실현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간중심교육이나 생활지도 및 카운슬링에 이 자아실현인이 슁意하고 있는 행동적 특징을 이해하는 한 가지 조희체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건강한 성격과 통합성

우리들은 재직 시에 심신 모두가 발랄해서 정력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정년퇴임 후 예상외로 아주 늙어 보이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원래 활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부단히 어떤 일을 밖에 설정해서 이 일에 정력을 집중시키려는 본질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단지 의무감에서 하는 것도 아니며, 결과에 대한 이익을 생각한 公利的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도 더 더욱 아니다. 더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요한 이유는 活動이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욕구이며, 인간은 활동에 의해서 자기자신이 생명을 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기의 눈앞에 일정한 과제(일)를 놓고 이에 공격하는 과정에서 성격의 통일과 에너지의 순환작용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만일 인간이 자기가 해야 할 과제를 잃었을 때에는 그가 전성격적으로 몰두해야 할 대상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또 그는 자기의 성격 에너지를 체제화할 방향을 갖지 못한 결과가 된다. 성격 내의 각 특성이나 기능은 각각 중심적 통제가 되지 않은 채 서로 간섭하고 대립해서 이른바 정신적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며, 신경증적 상태에 빠진다. 성격 내의 에너지는 외부의 과제해결에 동원되는 일 없이 성격 내에서 相殺되고 소비되어 비생산적, 비창조적 성격으로 달리게 된다. 여기에서 Allport(1937)는 성격의 통합성은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힘(力)을 기우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정신의 건강성은 인간의 일정한 과제의식의 유무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고, 또는 인생목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요법에서 작업요법(occupational therapy)이 중요한 치료기술이 되고 있는 것(교육·심리사전, 1965)도, 또 勞作教育 내지 직업교육(industrial education)이 성격의 전면적인 발달이란 점에서 중요시되는 것도 이를 웅변으로 말해준다. 그 어느 것도 거기에서 주어지는 작업이 성격으로 하여금 일정한 목표 하에서 과업을 해결해 가는 생활태도를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격의 체제화 내지 통합을 추진해 가려는 것이다. 이리하여,

정신의 건강성은 성격의 통합이라는 형태로써 가장 잘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건강한 인간은 성격 내의 제특성, 제기능의 사이에 조화를 볼 수 있는 機能的 統一體이다. 여기에서는 성격 내의 행동체계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일없이 그러한 것들이 성격의 중심적인 경향 하에 집약되고 통합되고 있다. 이를 역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건강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내부 싸움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없고 잉여 에너지를 외계의 과제해결이나 애정, 신조의 대상에 전력투구할 수가 있다. 말을 바꾸면, 건강한 인간이란 자아의 통일적 기능하에 고도로 역동적 체제화가 이루어진 효율성이 높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Maslow(1954)는 건강하고 좋은 적응상태에 있는 인간이 통합된 성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커다란 기쁨, 창조의 순간을 만날 때라든가, 중요한 과제, 위협, 위기를 우연히 만나서 이에 잘 대처할 수 있을 때 유기체는 그 통합성이 가장 높다.”(p. 75)고 기술하고 있다. 또 Symonds(1946)도 건강한 인간이 갈등에서 해방되고 통일된 구조를 갖는다면서 “좋은 적응상태에 있는 인간은 세계에 대해서 잘 통일되어 대응하고, 성격내에 서로 대립하는 경향을 갖지 않는다. 그는 어릴 때부터 兩向的 態度(ambivalent attitude)를 해결하고 있다.”(p.569)고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Allport, Lecky, Jahoda 등의 이론에서도 인정된다. 즉, Allport(1937)는 건강하고 성숙을 이룬 성격의 특성의 하나로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하나의 통제 목표로서 작용하는 ‘통일적인 인생철학(unifying philosophy of life)’을 들고 있고, Lecky(1945)는 종래의 행동주의와 정신분석과 같은 결정론적 이론을 부정하고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는 언제나 활동적이며 목적추구적이라고 하면서, 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동이나 태도를 조화시키고 일치시키는 것은 성격이라는 ‘자기 일관성(self-consistency)’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Jahoda는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으로 ① 환경의 적극적 지배, ② 성격의 통합성, ③ 세계와 자기에 대한 현실적 지각, ④ 자율성을 들고 있다(依田 新, 1977).

이 모두가 건강한 성격이 통합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신적 건강과 성격의 통합성 그리고 자아실현의三者의 개념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물론, 성격의 통합된 기능은 정신적으로 건강도가 매우 높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색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평균인도 역시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 통합적인 작용을 하며, 심지어 심신에 일정한 손상을 가진 사람에서까지 될 수 있는 한 자기실현을 가능하도록 그 손상을 보상하는 형태로 전성격의 재체제화가 시도된다. Goldstein(1959)는 뇌손상환자나 심장질환 환자에서까지 주위를 이해하는 태도와 개인의 고뇌를 견디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전성격의 組織代替에 의해서 자기실현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치료의 주요한 목적은-완전한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환자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성격을

고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면 이 결단은 새로운 방향화, 즉 그의 성질에 상응한 인생을 다시 살 보람이 있는 것으로 방향을 부여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p. 183)라고.

이와 관련하여 Frankl도 삶에 의미를 주는 세가지 방법, 즉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도 경험할 아름다움(경험적 가치:experiential value)도 없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취하는 태도에 의해서 의미를 찾을 때(태도적 가치:attitudinal value) 그 고뇌를 초월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고명규, 1995).

이와 같이, 인간은 이상적인 건강인에서 상해자, 이상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생명적 활동을 계속하는 한, 통합적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합된 성격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동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Ⅲ. 통합된 성격의 구체적 특성

인간의 모든 심리적 특성이 그러하듯, 통합된 성격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특성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성질을 띤다. 그래서 구성요인을 보는 시각에 따라, 또 같은 요인을 달리 표현함에 따라 그 구체적 특성의 질적·양적인 차이, 내지는 輕重의 차이가 있음을 전혀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上田吉一(1993)의 견해에 따라 통합된 성격의 구체적인 특성, 즉 성격표현을 **첫째** 과제에 대한 열중성, **둘째** 자주적 태도, **셋째** 언어와 행동에 대한 책임, **넷째** 미래지향성, **다섯째** 진정한 자기표현이라는 다섯 가지 구성요인으로 대별하여, 그 구성요인을 개별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과제에 대한 열중성이다.

과제(일)에 대한 헌신과 열중은 Allport, Maslow, Frankl 등의 성장심리학자들에 의해서는 물론 Freud와 같은 정신분석학자에 의해서도 한결같이 강조하는 성숙한 성격적 특성의 하나이다.

Allport는 성숙한 성격의 특성 중의 하나에 일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어떤 기능과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능동적인 몰두를 요구한다(고명규, 1998).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기술을 자신의 일에 몰입시킨다는 연관성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그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쉽게 자아와 관련된 모든 방어와 충동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일에 대한 헌신은 역시 Maslow의 자아실현인들의 특성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들은 문제중심적이며, 특권이나 금전적인 보상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meta-

need의 충족과 능력의 신장을 위해 일을 즐긴다(上田吉一 역, 1996). 여기서 일을 즐긴다는 것은 강한 의지로 무엇을 이루려는 노력형의 활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growth-need에 의해 저절로 일어나는 유희형의 활동을 일컫는다(上田吉一 역, 1994).

일에 열중하는 성격적 특성은 Frankl의 자아를 초월한 사람의 특성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그는 의미를 체득하는 방법 중 하나에 세상에 무엇인가를 주는 창조적 가치(creative value)를 들면서, 이러한 가치는 직업이나 직무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론적 특색은 외부의 힘에 의해 의무로 부과된 일의 틀을 넘어서 내부적 힘, 즉 개인 각자의 성격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을 통해서 意味를 찾는 데 있다(上田吉一 역, 1996).

이러한 특성은 Freud에 의해 안정된 성격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안정된 성격(stabilized personality)이란 심리화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신적 에너지가 많건 적건 그 자체를 소비하는 영구적인 그리고 확고한 방법을 발견한 성격이라는 것이다(Hall, 1954).

이상과 같이 일에 대한 몰두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건강한 성격의 특성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일에 몰두되었을 때는 심신 양면에서 어떤 상태를 겪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대해서 정신적인 몰두는 ① 공간적으로 개인과 외계와의 식별이 없다. ② 시간적으로도 큰 혼란을 경험한다. ③ 감정적으로도 특수한 모양을 띤다. ④ 신체적·생리적으로는 물론 전성격적으로도 재체제화된다고 설명한다(上田吉一, 1993). 이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공간적으로 개인과 외계와의 구별을 없앤다.

통합된 성격의 소유자는 일에서나 놀이에서나 몰두하며, 그 일 속에서 자기를 잇는다. 그에게 있어서 과제는 자기 밖에 존재하여 자기와 대립하는 것, 이질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몰입할 것, 자기와 一體가 될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Maslow(1971)도 자아실현인은 자기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이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맞는다는 느낌을 완전한 연애에 비유했다. 그 일과 사람은 “서로 의미가 있는 듯하다 ... 그 사람과 직업은 서로 꼭 들어맞아 열쇠와 자물쇠처럼 완전히 함께 존재한다”(pp. 301~302)라고.

이렇게 과제에 대한 몰입은 잠시 그 과제의 존재조차 잊게 하며, 자기는 완전히 과제 속에 동화되며, 마치 자기는 모두 과제인 것 같은 감각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인간은 어느 정도 無我的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행동의 의식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의식도 모두 잃게 된다. 단지 체험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전정신이 단지 한 점에 집약되고, 다시 그것이 무한히 멀어지면서 광막한 보편적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 간다는 느낌뿐이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세계에 대한 沒入은, 개인이 무한히 확대해서 우주와 合體하여 마치 세계의 절대자로 보여지는 神性이 부여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은 무한히 축소해져서 드디어

는 이 끝없는 세계 속으로 소멸해 간다. 이렇게 자아가 무한히 확장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축소해 간다는 逆說的 表現에서, 우리들은 자아와 외계가 어떻게 융합하며, 또 이 둘을 차단하는 경계가 얼마나 애매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둘째, 시간적으로도 커다란 혼란을 경험한다.

정신적인 몰입은 단지 공간적으로 개인이 외계와의 식별을 없앨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역시 매우 뚜렷한 혼란을 볼 수 있다. 일에 열중함으로써 주관적으로 시간이 지나감을 잊고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그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마치 졸음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주위를 두리번 거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심리상태에 대해서 Maslow(1962)도 “황홀함을 느낄 때가 가공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하루는 마치 일분간 정도 만큼이나, 또 그 일분 간은 매우 격렬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 또는 일년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것은 어떤 점에서 시간이 정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단한 속도로 지나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과도 같다.”(p. 76)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를 잊게 하는 열중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셋째, 감정적으로도 평소와는 다른 특수한 모양을 띤다.

일에 대한 열중은 이와 같은 인지기능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보통과는 다른 특수한 상태를 띠게 된다. 즉, 흥미와 관심, 호기심과 동경으로 시작되어 돌연한 감동과 외경심이 개인을 지배함과 동시에, 완만한 흥분과 긴장의 昂進이 그의 성격을 더욱더 고양시킨다. 그리고 심신기능이 촉진함에 따라서 자기충실감은 점차로 자기망각적인 쾌감과 황홀감으로 옮겨져서, 개인은 大洋과 같은 위대한 것 속으로 사라져 가는 듯한 기분에 잠기게 된다.

넷째, 신체적·생리적으로는 물론 전성격적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가장 유효적절하게 재체제화 된다.

통합된 성격의 열중성은 이와 같은 현상학적 사실로서만 모두 기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과제에 대한 열중은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과제수행을 위해 가장 유효적절한 체제로 변한다. 예컨대, 그림을 감상할 경우, 그림이라는 대상에의 몰입은 개인의 시각은 물론 기타의 감각기관·운동기관 아니, 전성격이 모두 이 그림과 씨름한다. ‘씨름한다’ 라기 보다는 오히려 ‘빠진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의 빛나는 눈동자는 대상을 관통할 만큼 유달리 예민해져서 눈 깜빡하지 않고 그림을 심사숙고한다. 즉, 그림이 누구의 것 또 그가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단지 그림 속에 빠져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그림만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림을 보고 있는 자기를 아는 것 그림의 작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림 속에 빠진 경지에서 일단 현실세계로 자기를 다

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다른 관점에서의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청각이나 피부감각, 기타 감각기관도 그림감상에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그림과 무관한 자극이 아무리 강렬하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 감각기관을 그림에 투입하여 귀로 그림을 보고 몸으로 그림을 감상하려고 한다. 이와같은 체제화는 감각기관에만 그치지 않고, 그림감상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그의 운동기관도 재제제화된다. 감상에 全身을 내던질 때의 긴장은 마치 Auguste Rodin(1840~1947)의 '생각하는 사람'이 보이는 팔 근육의 긴장처럼, 다른 근육긴장을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근육긴장을 뚜렷하게 강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전체로서 운동기관도 역시 필요한 근육의 긴장과 이완으로써, 이 작품감상에 응분의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신집중은 감각계·운동계라는 외부영역만이 관여하지 않고, 욕구나 흥미도 역시 이런 작용에 가담한다. 사실, 전 성격이 이런 감상에 뒤따르는 셈이다. 개인의 유일한 바램은 오로지 그림과 합체하는 것이며, 그림을 감상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다. 그 밖의 욕구 예컨대, 식욕이나 사회적 인정의 욕구는 이 결정적인 바램 속에 잠시 잊게 된다. '밥도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감동한다' 든가, '寢食을 잃고 몰두한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욕구나 흥미도 역시 하나의 체계 속에 포섭되어 버린다. 만일 어떤 개인이 벗과 교제할 기회로서 그림감상을 한다든가, 식사를 하면서 制作에 대처하는 태도 같은 것은, 도저히 과제에 대한 진정한 열중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성격은 때로 선택장면에서 갈등에 빠질 것이며, 그렇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제2의 욕구는 원래의 욕구실현을 방해하여 성격의 통합성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2. 자주적 태도가 강하다.

자주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남을,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통합된 성격의 소유자는 모든 상황에서 행동이 따라야 할 표준을 외계에서 보다는 自我에서 구하기 때문에 자주적 판단이 가능하다.

통합된 성격이란 유일무이한 자아를 중심으로 많은 특성과 능력, 행동경향이 통합된 체계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통합된 성격은 그 개개의 측면이 외적 상황의 특수성에 지나치게 적응하려고 한 나머지 결국 성격으로서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구조가 아니므로, 그의 행동이나 태도도 모두 그의 독자적인 자아를 뚜렷하게 반영한다. 그는 개개의 상황에서 행동이 따라야 할 표준을 자아에서 구한다. 즉,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場을 인지하여 자신의 자주적 판단으로 행동을 결정한다. 그는 자기를 외계의 기준보다는 일보 높은 위치에 놓고, 자기가 따를 행동의 규범을 직접 외계에서 구하지 않

고 이미 외계로부터 받아들여진 자아의 統制機能에 따르려고 한다. “스스로 일관된 신조, 가치관을 갖지 않고 언제나 외적 기준에 의지하려는 인간, 또는 원래 고독하여 사회적 연대성을 가질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의 주위에서 자기 행동의 기준을 찾고 자기의 고독을 치유하는 대상을 찾으려는 타인지향형(other-directed type)”(Riesman, 1950, p. 22)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그가 놓여진 역사적, 사회적 문화 속에 아주 매몰해 버릴 것이다.

심리학자인 Shostrom(1976)은 자아실현을 크게 시간성 차원과 지향성 차원으로 구별하면서, 지향성 차원을 자기에게 가치판단의 기준을 두고 자기를 신뢰하는 내부지향성과 남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맞추어 가치판단을 하는 외부지향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설기문, 1997). 여기에서 내부지향성(inner-directed)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및 가치관을 중시하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이는 건강한 인간의 통합된 성격인 반면에, 외부지향성(outer-directed)은 자신보다는 타인의 생각이나 신념 또는 외부의 권위에 얽매인 행동을 하는 불건강한 사람인 Riesman의 타인지향형이라 할 수 있다.

Rotter(1966)도 일상적인 관찰을 토대로 내적 통제인(internal controller)과 외적 통제인(external controller)으로 성격을 양분하여, 전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 자신의 통제범위에 있음을 분명히 각성하고 있음에 비해서, 후자는 그가 사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다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지적한다. 내적 통제인에게 요구되는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곧 자신이라는 自己效能感(sense of self-efficacy)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자들은 개인이 복잡하고 혼동된 사태를 처리하는 인지양식(cognitive style)에 장의존성(field dependence)과 장독립성(field independence)이라는 개인차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Witkin, 1967). 장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복잡한 사태를 전체로서 받아들이고 그가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독립된 관점보다는 사태가 암시하는 바에 의해서 동요되는 반면, 장독립성이 높은 자는 사태의 다른 측면을 서로 분리해내고 그의 목적에 무관한 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主體的 決斷은 바로 이 장독립적 관점에서만 내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장독립성은 곧 통합된 성격의 한 면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自由人에게는 자기 주변의 세력이 가하는 압력, 그리고 고정관념을 초월하여 자기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가치와 利害에 경청하고 그것에 충실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치, 스스로 인정하는 독립심이 요구된다는 것(장상호, 1980)도, 통합된 성격이 갖는 이 자주적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통합된 성격은 강고한 자아의 확립 즉 확고한 自信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

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독립성과 환경을 초월하는 특질이 있다.

통합된 인간들은 이미 스스로 강고한 자아를 확립하고 있고, 확고한 자신과 가치관을 갖고 있다. 또 그들은 이미 긴밀한 사회적 연대성을 유지하고 있어 새삼스럽게 타인의 명성이나 인기 및 집단의 동향에 좌우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통합된 성격은 행동을 자기의 인간성의 본질에서 나온 내재적 법칙에 표준을 두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는 결코 현존하는 규범을 언제나 부정한다든가, 자기가 속한 문화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적합한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것을 넓게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규범이나 문화가 오히려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습관을 고정화하여 기성질서로 인간성의 자기실현을 방해할 때는 이와 떼떽하게 싸우는 일마저 사양치 않는다. Maslow(1962)도 “나의 건강한 피험자는 표면적으로는 관습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관심하고 적당주의적이고 그것과는 동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즉, 그들은 관습을 다룰 수도 그만둘 수도 있다. 실제로 그들은 모두 문화가 지니는 어리석은 일이나 불완전한 사항을 다소나마 개선하려고 함과 동시에, 온화하게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점잖게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필요할 경우, 이와 심하게 싸우는 능력을 확실히 보였다”(p. 170)고 기술하면서, 건강한 인간은 환경을 초월하는 특질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어쨌든, 통합된 성격이 갖는 自立性은 사로잡히지 않는 순수한 눈(眼)으로 현실세계를 보며, 참신하고 솔직한 판단으로 현존문화의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바로 이러한 입장은 그가 몸담은 문화를 절대대해서 이에 매몰해 버린다는 것도 아니며, 또 반대로 어떠한 문화일지라도 超然해서 이것을 공격만 할 뿐 이와 연계를 지닐려고 하지 않는 犬儒主義도 아닌 것이다. 언제나 그 문화와 연대감을 지니면서 이것을 초월하는 일면을 갖고 있다. 이리 하여, 그는 각각의 사회규범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객관시한다든가 비판한다든가 할 수 있고, 그 문화를 개선하는 진보적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환경을 초월한다라고도, 社會的 獨立性을 갖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셋째, 이러한 문화에 대한 유연성과 순응성 및 부동적인 자기 신뢰감과 고집성은 통합된 인간으로 하여금 시대정신을 이탈할 수 있는 精神的 指導者로 만든다.

통합된 성격은, 언제나 변천을 계속하는 역사적·사회적 현실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일관하고 인류 모두에게 공통하는 보편적 사실을 구한다. 그는 구체적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취하게 한 기본적 태도는 언제나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을 자각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놓여진 문화에 대해서 유연성·순응성을 유지하면서, 그 성격의 핵심에 움직이지 않는 자기 신뢰감과 固執性을 계속 가질 수가 있다. 통합된 성격은 자아의 求心性이 크기 때문에, 비록 표면적인 행동이 특정의 문화와 연계를 갖고 이에 몰입한다 하더라도, 결코 자아에의 復歸를 버리는 일은 없다는 확신이 있다. 따라서, 성격의 통합성이 강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현실상황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들어갈 수가

있고, 더구나 자아를 잃지 않게 된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들(spiritual leaders)들은 모두 그 당시의 사회에 널리 퍼진 時代精神을 대담하게 이탈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시대의 구성원인 일반인들로부터 때로 이단자로, 반역자로 보여짐으로써 배척된 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정신이상자도 아니며, 더구나 범죄자도 아니다. 그들은 현실과의 연계를 잃지 않고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크게 초월할 수 있는 통합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여기서 사회가 改良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그 사회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동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示唆한다.

3. 言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강한 책임감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통합된 성격의 언어와 행동은 그의 자아 즉 자유의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책임을 질 수 있다.

통합된 성격은 행동을 그의 진정한 자아에 따라서 발동하므로, 그의 언어와 행동은 진정한 자아와 일관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구조를 가진다. 그는 어떤 것에도 구속받는 일 없이 자아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통합된 성격이 자주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이며, 자유인이라고 형용할 수 있다. 허나, 이와 같이 그의 행동이나 태도가 그의 자아를 그대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의 언동에 대한 善惡은 그의 성격 전체의 선악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즉, 그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는 성격 전체로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자유로운 존재임과 동시에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에 비하여, 통합성을 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의 자아는 그의 욕구충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어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을 반복하며, 때로 충동에 몸을 내맡기어 버리는 신경증적 구조를 지닌다. 자아의 통제에 복종할 수 없는 욕구충동은 그의 의지에 반한 행동을 취하게 하며, 이 행동에 대해서 자아는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비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일이 되어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의 행위로 줄달음친다. 事後에 어느 정도 죄의식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보상되지도 않으며, 또 그의 책임이 완수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충동에 사로잡힌 자유롭지 못하고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은 또한, 作爲體驗을 하는 분열병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자기의 행위가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서 동기지워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밖에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한다. 그는 자아와 他我的 구별이 애매하고, 자신의 행위를 '타인이 조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나의

행위는 모두 전기장치로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 갑자기 무리하게 손을 쳐들게 된다는가, 이상 하지도 않는데 웃게 되기도 한다. 내가 웃는 것은 이상해서가 아니라 전기장치로 웃게 된다. 또 나에게 이상한 생각을 일어나게 하고, 내 자신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흡수해버린다.”(村上仁, 1951) 라는 기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능동적 의식을 잃고, 이것을 마치 타인의 행위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감정은, 자아의식을 잃어버린 離人症 환자에게서도 다소 인정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자기를 진정한 자기로서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기의 주체적인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런 주체적인 자유의지의 상실은 정상인의 경우, 어릴 때 부모의 잘못된 자녀양육태도와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심리치료자에 Erik Berne(1910~1970)이 있다. 즉, “인간은 원래 자유의지(free-will)에 의해서 자기실현을 꾀할 수 있는 반결정론적(anti-deterministic)이며 긍정적인 성질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지만, 생의 초기에 주로 부모에 의한 금지나 명령에 대해 아동 나름대로의 해석과 관련하여 내리는 일련의 결단으로 각본이 형성된다. 이 형성된 脚本에 따른 무의식적인 현재의 삶이 그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행동의 주도권도 갖지 못하게 한 채, 타인의 遠隔操作(remote control)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로 전락시킨다”(고명규, 1997)고 그는 역설한다.

한편, 이와 같은 개인의 자주성의 문제는 또한, 직접 개인의 책임성과도 통한다. 자기의 행위가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지로 조종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책임도 희박해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異常人의 언동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언동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Frankl도 의지의 자유가 정상인의 특색이며, 어떤 류의 정신이상자나 운명론자 및 결정론자에게 있어서는 결단의 자유나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上田吉一, 1994).

그러므로, 통합된 성격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발동시킬 수 있는 성격이다. 그는 자기의 행동결정이 다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기의 판단력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의식을 계속 가질 수 있다. 또, 그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단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뒤에 그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가 정신적 고뇌를 극도로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하에서 취할 수 밖에 없었던 행동이라 할 지라도, 그가 진정 통합된 성격의 소유자라면 자기의 의지에 反한 행동이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자기의 행동을 환경의 상황에 투사하여 책임전가를 꾀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는 또한 그 상황에 부적당한 행동 때문에 부적응에 빠진다는가, 목적에 이를 수 없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자아와 일치하며 자아의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둘째, 통합된 성격은 자아정체감의 지속성으로 인해 시·공간적으로 모든 장면에서 그의 언동에 책임질 수 있다.

정옥분(1998)은 확고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의 소유자는 개별성과 총체성 그리고 계속성을 경험하게 된다면서, 개별성을 가치나 동기 또는 관심을 타인과 공유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남달리 특별하다는 인식으로, 총체성을 자신의 욕구·태도·동기·행동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계속성을 시간이 경과하여도 자신은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통합된 성격의 자아는 공간적으로 모든 장면에서 통일된 그의 특유한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역시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언제나 독자성과 恒常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통합된 성격이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현재 속에 살리고 이것을 다시 미래의 목표나 의도 속에 짜넣어 갈 수 있다는 것도, 바로 이 자아정체감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Bergson은 생명 그 자체의 존재는 시간적 관계에서 성립한다고 설명하지만(上田吉一, 1994), 역시 통일된 성격의 존재도 행동의 시간적 일관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의 節概를 굽히고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자신의 자아와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때 그때의 사조에 합치시키는 인간은, 자신의 언동에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 있어서나 자아가 늘 지향하는 바를 잃지 않고 이에 따른 통일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래 지향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지향적이란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속성을 의미한다.

첫째, 통합된 성격의 소유자는 그의 에너지를 과거에 투입하기 보다 미래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집약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Freud의 인간관은 현재의 행동이나 태도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어릴 때의 경험이 현재의 성격이나 행동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의 精神力動的 發想法은 행동의 동인을 물리학적 인과관계로 파악하여, 행동이 선행한 사태의 단순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어쨌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색은 기계론적인 인간관이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를 지닌 주체로서 개인을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같은 해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말할 것 없이 모든 유기체는 생명을 지닌 존재이지만, 여기에서 포착된 인간은 단순한 인간이며 scheme이며, 그것을 움직이는 생명적 에너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Freud는 이런 결함을 알기 때문에 libido라는 개념을 만들었지만, 이 개념이 성적 에너지로 한정되는 한 여기서 묘사되

는 인간은 여전히 통합성이 결한 신경증적인 인간으로 부상할 따름이다.

통합된 성격의 개념은 이와 같은 과거에 규정되는 결정론적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며 미래에서 자기실현을 위하여 에너지를 집약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 充溢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즉, Freud나 Jung이 libido로 부르고, Janet 등이 심적 긴장력으로 포착하는 근본적인 生命力이 성격내부에 가득 넘치고 있다(上田吉一, 1993). 그리고 이 축적된 에너지는 외계를 향해서 해발, 말을 바꾸면 그 에너지의 배출구(outlet)를 개인의 후속하는 행동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선행한 행동은 이미 과거의 행동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에너지를 해발할 기회는 잃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및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에너지를 해발할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이 에너지를 미래에서 소비할 충당대상(cathexis-object)를 찾게 된다. 즉, 자기가 理想으로 하는 목표를 미래로 투영하여 이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와 관련하여 Shostrom(1976)도 자아실현의 시간성 차원을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시간유능성(time-competent)과 이와 반대되는 시간무능성(time-incompetent)으로 나누어 설명한다(설기문, 1997). 건강한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과거나 미래를 현재중심으로 통합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유능성을 가진 반면에, 불건강한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과거에 집착함으로써 후회·미련·원한을 갖고 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환상만으로 살아가는 경향인 시간무능성이 있다. Perls도 우리의 眺望이 과거나 미래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과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희생시키기 때문에, 여기-지금(현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唯一한 實在임을 강조한다(고명규, 1996).

그 어느 것도 요컨대, 과거를 인식하되 과거 속에 살아서는 안되며, 미래의 계획을 세우되 現在의 代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보다 미래에 지배되는 緊張增加型이 성격학자들이 한결같이 선호하는 성숙한 인간형이다.

미래에 목표를 두는 것에 중요성을 유달리 강조한 사람은, Allport이다. Allport(1955)는 긴장 또는 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격을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그의 성격통합설에서, 이 긴장이나 에너지의 개념을 종래의 긴장해소론의 입장에서보다 오히려 긴장지속의 작용이라는 自我追求(propriate striving)로 가정하여, 이것이 끊임없는 활동을 위한 동기가 되고 성격을 통합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욕(striving)이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개인에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하며, 안이한 현실만족보다도 변화와 전진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Allport(1955)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미래로 이끄는 데 바쁜 것 같이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심리학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바쁜 것처럼 보인다”(p. 51)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인간이 갖는 미래지향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所論은 Allport에게만 한정될 수 없다. Adler를 비롯해서 Lewin, Lecky, Maslow 및 Frankl도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한다.

먼저, Adler에 의한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관련된 것이 바로 그의 架空的 目標論(fictional finalism)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假想(fiction) 또는 理想이 현실보다 더 효과적으로 인간을 움직인다는 Hans Vaihinger의 말에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이형득 편, 1992). Adler에 의하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허구로서 실현이 불가능할 지도 모르나, 행동의 원인, 충동, 본능, 힘 등을 넘어서 행위의 최종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Adler가 인간의 행동이 그의 과거경험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더 좌우된다는 생각, 즉 인간동기의 목적론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측면을 강조(Hjeller & Ziegler, 1981)하기 위해서 가상적 목표론을 논했음을 목격할 수 있다.

Lewin도 발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현재의 생활공간의 일부로 보아야 할 미래의 전망, 즉 시간적 전망(time perspective)에서의 변화라고 강조한다(依田 新, 1977). 이처럼 유기체의 행동이 미래의식에 의한 지배, 즉 미래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는 기대와 공포 및 희망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현재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개인이 설계하고 있는 미래의 구조를 파악하는 수단이 된다는 逆說이 성립된다.

Lecky(1945) 역시, 성격을 Pavlov의 조건반사설에 의한 자극에 대한 반응체계설과 Freud의 정신역동설에 의한 과거경험에 대한 인과관계설로 보는 입장을 모두 비판하면서, “인간은 힘(力)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이며, 그의 장래는 과거행동의 기록에 의해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은 살아있는 한 하나의 단위이며, 전체로서 작용하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반응보다는 행위에 의해서, 즉 목적에 의해서 이해되기를 바란다.”(p. 151)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Maslow도 그의 욕구위계설(need hierarchy theory)을 결핍동기(deficiency motivation)와 성장동기(growth motivation)라는 형태로 간결히 정리하면서, 전자는 특정 목표물을 찾음으로써 긴장감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후자는 그 목표가 삶의 경험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다양하게 하며, 살아있다는 기쁨과 열정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긴장을 증가시킨다(上田吉一 역, 1996)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물론 성장동기는 미래지향성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Frankl도 의미의 의지(will to meaning)를 인간에게 목표추구력, 즉 우선적인 동기적 힘(primary motivation force)으로 역설하면서, 이 의미의 추구는 심적인 평형 대신 긴장을 경험케 하지만 이러한 긴장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건강의 필요불가결한 선행조건으로 본다(고명규, 1995).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긴장의 해소가 아니라, 자신이 성취해야 할 의미와 그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간의 양극적 긴장현상인 心靈的 力動(noodynamic)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간격, 즉 긴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목표를 계속 찾게 하는 노력을 일으키며, 이러한 계속적인 노력이 삶에 열정과 희열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지향성은 현대 성격심리학에서는 물론 성격심리학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는 것처럼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간다.

인간은 점차 삶을 통해서 반복되지 않는 개인의 역사를 만들고 있지만, 이 개인의 역사는 언제나 과거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지 현재가 과거의 반복이라면 거기에는 시간의 세계도 없는가 하면, 생명의 활동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기체,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현재를 규정함과 동시에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가는 일면도 있다. 즉, 미래의 목표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결과에 머무는 개인에게 작용하여 이에 방향을 주고 일보 전진하게 하여,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보태게 한다. 더구나, 이것을 연속적인 시간계열 속에서 계속하게 될 때 거기에 날마다 새로운 생활이 영위하게 되고, 개인에게 고유한 성격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그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한, 역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가 높은 성격 에너지를 갖고 명확하고 강력한 목표를 미래에 설정했다고 한다면 그의 성격은 보다 미래지향적이 되고, 이런 미래 목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다양한 성격경향을 통합함으로써 통합된 성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넷째, 미래라는 열린 세계이며 또 가능성으로 충만한 세계에서의 자유로운 결단의 가능성은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하여금 낙천주의자이며 적극주의자로 만든다.

미래를 지향하는 통합된 성격은 비교적 낙관주의자이며 적극주의자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언제나 열린 세계이며, 가능성으로 가득찬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많은 가능한 장래에 대해서 자기의 자유로운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이를 실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가 하면, 향상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요컨대, 그는 미래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한, 과거에 구애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열려진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는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은 낙천주의자(optimist)의 일면을 가짐과 동시에 또 現狀을 단지 긍정할 뿐만 아니라, 미래는 더욱 현상보다도 전진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진보성과 進取性도 겸비할 수 있다. 그는 과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내는 퇴행적 성격도 아닌가 하면, 과거의 실패로 무의미한 병적 悔恨을 계속 가지는 정신이상자도 아닌 것이다. 바로 그는 미래에 기대를 거는, 그러기 때문에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현재에 사는 創造的 人間이라고 지칭하지 않을 수 없다.

5. 진정한 자기를 자발적으로 표현한다.

통합된 성격의 특징은 성격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분리·대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격 부분이 자

아와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통일되어 있다. 그에게는 성격의 일부가 진정한 자기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 Rogers(1961)는 상담과정이 假面이나 방어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내담자)는 있는 그대로의 그가 아닌 존재, 즉 외면적인 존재에서 해방하게 된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 이상으로 될려고 불안정감이나 과장된 방어를 갖는 일도 없는가 하면, 현실의 자기 이하로 될려고 죄악감이나 자기비하를 취하는 일도 없다. 그는 점차로 자기의 생리적·정서적 존재에서 오는 마음 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그는 정말로 진정한 자기가 되고픈 자기를 점차 찾아내게 된다.” (pp. 175~176)라고.

그런데, 이러한 통합된 성격에서의 자발적인 자기표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통합된 성격은 그의 본질적인 욕구를 의무감에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표출한다.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회규범에 저촉될지도 모르며, 또 타인의 감정을 해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보다도 먼저 자신 속에 조작되고 있는 억압과 방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신의 힘만큼 주장하려면, 일반적으로 불안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된 성격은 원래의 자기가 아닌 세상체면에 사로잡힌 假面을 내팽개치고, 순수하고 사로잡히지 않은 자기를 자유스럽게 표현한다. 그는 너무나도 타인의 의향과 인기 등에 구애되어 자기를 잃어버린다고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의무감에만 사로잡혀서 자기의 본질적 욕구를 잃어버린다고든가 하는 일은 없다. 그는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스스로 선택한 것을 그의 독자적인 양식으로 대담하게 표출한다. 그는 자기의 욕구와 감정을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타인과 생생한 감정의 교류를 불러일으킨다. 그는 자기의 일부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성격을 총동원하여 자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Maslow(1962)도 이와 같은 성격을 묘사해서 “자아실현인은 이제 장애, 억제, 경계심, 공포, 의욕, 통제, 사양, 자기비판, 제지되는 상태에서 매우 자유로운 입장에 놓여지고 있다 ... 그는 자발적이고, 표현이 풍부하고 천진난만하게 행동한다. 또 자연스럽고 구애되지 않고, 자기를 자유롭게 표출한다.” (p. 101)라고.

둘째, 진실한 자기표현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한 자발적인 발로이다.

통합된 성격의 자기표현은, 반드시 특정한 고정된 목표나 혹은 과제에 대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채 저절로 표출하며, 우연히

나타나게 되는 수가 많다. 주도면밀한 계획과 이에 근거한 실천이라는 두 단계의 행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참으로 자유롭고 전성격이 투입되는 행동표현은 그 자신도 예측할 수 없는 자발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상적 자아(ideal self)와 현실적 자아(real self) 간에 완전한 일치(self-congruence)를 볼 수 있는 성격에 있어서는, 이상자아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계획과 현실자아에 대응하는 실천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高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겪는 苦行 역시 볼 수 없다. 그의 자기실현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행동이며, 때로는 사소한 일로 무심코 일어나는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컨대, 창조적 행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통찰의 閃光은 오히려 그의 의식이나 무의식 모두를 포괄한 정신적인 전체경험을 하는 가운데에, 말하자면 갑자기 無에서 일어난다. 물론 이에 앞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궁리하고 연습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창조적 행위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정신통일의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친다. 창조작용은 통합된 성격에서 볼 수 있는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적, 총체적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 既成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아의 독자적인 표출이 바로 독창적인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그의 욕구에 따른 행동표출은 사회적 규범과도 일치함과 동시에 그의 양심과도 조화를 이룬다.

진실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통합된 성격에 있어서는, 또한 욕구(id)와 초자아(superego), 욕구와 자아(ego) 사이에서도 一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의무의식에 따른 행동과 욕구에서 나온 행동에 차이가 발견된다는가, 순수하게 욕구에서 동기지워진 행동이 의무감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다는가 하는 일은 없다. 즉, 성격의 기본적 욕구가 만족할 수 없는 채 의무적 행동을 한다는가, 역으로 자기의 욕구에 따른 행동에 죄의식을 느낀다는가 하는 일 없이 자신의 욕구만족이 동시에 사회적 규범에도 합치하며, 자신의 양심도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통합된 성격의 極致는 바라는 바 그것이 그대로 사회적 규범과 일치하고, 또 양심이 명하는 바와도 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사회적 행위는 의무감각에서 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자주적 바람에서 즐겁게 행해질 것이다. 마치 孔子가 “從心所欲 不踰矩(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규칙에 벗어나지 아니함)”라고 말한 경지나, 또 Goethe가 Wilhelm Meisters 수학 시절에 “나에게는 거의 계율이란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규칙이란 형태로 나타난 것이 없다. 나를 안내하고 언제나 正道를 걷게 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의 충동이다. 나는 자유롭게 마음이 바라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도 어떤 구속이나 회한도 느끼지 않는다...”(上田吉一, 1993, p. 177)라고 고백하고 있는 심경이야 말로, 이런 성격통합이 극도로 발휘된 理想像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내·외의 전성격영역이 자아를 중심으로 집결되어 나타나는 데 통합된 성격의 핵심이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Allport(1937)에 의하면 통합된 인간은 확고한 인생관을 지니며, 여기에서 모든 태도나 특성 및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통제목표이며 지배적 감정이라는 것이 바탕에서 작용하여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 개성있는 인간이 형성해 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각 개인의 중심적인 생활근거에 의한 것이다.

Spranger도 가장 가치를 두는 '생활양식'에 따라 인간을 여섯 가지 유형 즉, 경제형, 이론형, 심미형, 종교형, 권력형, 사회형으로 서로 구별하고는 있지만(岡堂哲雄 편, 1984), 그 어느 것도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전성격의 전반적인 생활태도가 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통합된 성격의 핵심은, 자아를 중심으로 성격의 외부 표면적인 영역만이 관계되지 않고 모든 성격층이 집결하는데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통합된 성격이란, 자아의 통일적 기능 하에 고도로 역동적 체제화가 이루어진 효율성이 높은 건강한 인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된 성격에서 볼 수 있는 외현적·구체적 특성을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1) 과제에 대한 열중성

과제(일)에 대한 헌신과 열중은 Allport 등의 성장심리학자는 물론 Freud와 같은 정신분석학자에 의해 한결같이 강조되는 성숙한 성격의 특성의 하나로서, 이런 정신적인 몰두는

첫째, 공간적으로 개인과 외계와의 구별이 없어진다.

둘째, 시간적으로도 커다란 혼란을 경험한다.

셋째, 감정적으로도 평소와는 다른 특수한 모습을 띤다.

넷째, 신체적·생리적으로는 물론 전성격적으로 과업수행을 위해 가장 유효적절하게 재체제화된다.

2) 자주적 태도가 강하다.

첫째, 통합된 성격의 소유자는 모든 상황에서 행동이 따라야 할 표준을 외계에서 보다는 자아에서

구하기 때문에 자주적 판단이 가능하다.

둘째, 통합된 성격은 확고한 자신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독립성과 환경을 초월하는 특질이 있다.

셋째, 문화에 대한 유연성과 순응성 그리고 부동적인 자기신뢰감과 고집성은 통합된 인간으로 하여금 시대정신을 이탈할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로 만든다.

3) 言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첫째, 통합된 성격의 언어와 행동은 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통합된 성격은 자아정체감의 지속성으로 인해 시·공간적으로 모든 장면에서 그의 언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

4) 미래 지향적이다.

첫째, 통합된 성격의 소유자는 그의 에너지를 과거에 투입하기보다 미래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집약한다.

둘째, 삶의 향상과 진보를 자극하는 미래목표에 의한 긴장증가형이 성숙한 인간형이다.

셋째, 현시점의 과거에 머무는 인간에게 방향과 진로를 제시하는 미래목표가 현재를 만들어 간다.

넷째, 가능성으로 충만한 미래세계에서 자유로운 결단의 가능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낙천주의자와 적극주의자로 만든다.

5) 진정한 자기를 자발적으로 표현한다.

첫째, 그의 본질적인 욕구를 체면에 구애받지 않고 대담하게 나타낸다.

둘째, 진실한 자기표현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한 자발적인 발로이다.

셋째, 그의 욕구에 따른 행동표출은 사회적 규범은 물론 그의 양심과도 일치한다.

넷째, 통합된 성격의 핵심은 성격의 내·외적인 전영역이 자아를 중심으로 집결되는 데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통합된 성격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충분히 자아실현을 하는 성격으로서, 이런 자아실현에는 최대한으로 그의 성격기능의 발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인간의 성격기능의 충분한 발휘란 심신 양면이 지닌 기관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인간을 뜻한다. 여기서, 건강한 인간이란 곧 Rogers가 주장한 대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인간(fully functioning person)을 말하며, 이런 '滿發機能人'의 특징으로 경험에의 개방성, 실존적 삶, 유기체적인 신뢰감, 경험적 자유, 창조성을 들 수 있다(上田吉一 역, 1996).

또한 Maslow도 자아실현적 인간이라고 여기는 성장욕구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 즉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로써 창조적인 역사적 인물과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만이 지니는 전체적 특성을 조사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上田吉一, 1996) : 현실에 대한 효율적인 지각·자신, 타인, 자연에 대한 수용·자발성·분계중심·사생활에 대한 욕구·자율성·신선한 감상력·절정 경험·공동사회적 의식·심오한 대인관계·민주적 태도·도덕성·유모어 감각·창의성.

따라서, 이와 같은 자아실현은 통합된 성격이라는 효율성이 높은 성격체제에 의해서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자아실현과 정신건강 간에 의미관계를 밝힌 후, 성격의 통합성과의 관계도 밝히기로 한다. 물론 자아실현이나 정신건강은 세계관·인간관 및 사회관 등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보기로 한다. 자아실현에 대해서는 Maslow가 그의 동기위계론에서 최상의 인간의 동기를 자아실현에의 동기로 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Maslow(1962)는 이 자아실현중인 경향을 다음 네 측면 즉, 첫째, 잠재가능성·역량 및 재능의 계속적인 사실화, 둘째, 사명(혹은 소명·숙명·운명 및 천직)의 수행, 셋째, 개체자신의 원래의 특질에 관한 충분한 지식 및 수용, 넷째, 개체안에서의 합일·통정 및 동시작용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팔중(1980)도 이와 비슷하게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다고 상정되는 神性을 발견하여 그에 합일되도록 자신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소명을 수행하는 것, 사회·문화적인 세력과의 조화를 통하여 인간성을 발전시키는 것, 가치있는 과업을 성취하는 것, 혹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잠재가능성을 사실화하는 것"(p. 11)으로 설명한다.

또한 설기분(1981)은 Maslow와 Shostrom의 이론에 근거하여 자아실현의 개념을 이해하고 상담심리학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자아실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즉,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인이나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에 의해서 동기화되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융통성을 갖고 현재를 중심으로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생각들에 대하여 그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자기자신 및 인간일반을 긍정하고 존중할 수 있음으로써 인

간관계를 맺는 데에 곤란을 느끼지 아니하고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한다.

한편, 장연집 등(1997)은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합시키면서, “정신건강이란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며, 독립적·건설적·자주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처리해나가는 능력으로, 이를 위해선 신체적·정신적·사회적·도덕적 측면의 조화가 바탕이 된다”(p.20)고 보았다.

이와 같이 보면, 자아실현이나 정신건강에서 공통적인 행동적 특징으로 내부 지향성·통합성·창의성·자율성 등을 함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심리적·행동적 특성들은 바로 이 연구의 대상인 통합된 성격의 다섯 가지 외현적 특성과의 상통되는 바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 자아실현·정신건강·성격의 통합성이라는 三者의 概念은 서로 긴밀한 기능적 관계와 관련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긴장감소형(tension-reduction model)이 아니라, 긴장증가형(tension-increase model)이라는 점이다. 즉, 건강한 인간은 Freud의 쾌락원리에 의한 긴장해소에서가 아니라, 성장심리학자들에 의한 긴장이 지속하는 인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Freud는 이완의 쾌감은 인정하지만 긴장의 쾌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Goldstein의 Freud에 대한 비판(Goldstein, 1939)이나, 인간의 生成이 긴장을 지속하는 가운데에 진행된다는 고유자아(proprium)의 개념을 다룬 Allport(1955), 또는 결핍동기에 대응해서 성장동기의 존재를 강조하는 Maslow의 성격이론(Maslow, 1962)을 둘 필요도 없이 인간의 자아실현이 끊임없는 향상적 에너지에 의해 지지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장 내지 에너지는 통합된 성격이 지닌 성격기능의 시·공간적 통일작용에 의해서만 집약되고 지속된다는 점에, 우리들이 이런 통합된 성격에서 비로소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명규(1995). Frankl의 의미요법에 관한 일고찰, 학생생활연구, 제16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6). 케슈탈트 상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학생생활연구, 제17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7). 의사교류분석적 상담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학생생활연구, 제18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1998). "성숙한 성격의 특질에 관한 연구" 녹연 권순명박사 회갑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인간발달과 적응, 대전 : 충대문화사, pp. 161~176.
- _____ (1999). 통합된 성격의 특성에 관한 일고찰, 학생생활연구, 제20집, 제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설기문(1981).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7).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 학지사.
- 윤팔중(1982).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론, 서울 : 교육과학사.
- 장상호(1980). 인간행동과 자유, 서울 : 교육과학사.
- 장연집·박 경·최순영(1997).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 학지사.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교육·심리사전(1965). "작업요법". 서울 : 배영사. p. 283.
- Allport, G. W.(1937). Personality :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 Henry Holt.
- _____ (1955). Becoming : Basic considerations for a psychology of personalit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 Goldstein, K.(1939). The organism. New York : American Book.
- _____ (1959). Health as Value, In A. H. Maslow(ed.), New Knowledge in Human Value, New York : Harper & Brothers.
- Hall, C. S.(1954). A primer of Freudian psychology. New York : The New American Library.
- Hjelle, L. A., & Ziegler, D. J.(1981). Personality theories : Basic assumption, research, and application, 2nd. ed., New York : McGraw-Hill.
- Lecky, P.(1945). Self-consistency : A theory of personality. New York : The Shoe String Press.
-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Brothers.

- _____ (1962).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 D. Van Nostrand.
- _____ (1971).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 Viking, pp. 301 ~302.
- Riesman, D.(1950). *The lonely crowd*.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 Rogers, C. R.(1961). *On becoming a person :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I, Whole No. 609).
- Symonds, P. M.(1946). *The dynamics of human adjustment*.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 Witkin, H. A.(1967). A cognitive-style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 233~250.
- 岡堂哲雄(編)(1984). *心理學入門*. 日本：協同出版.
- 上田吉一(1993). *精神的に健康な人間*. 日本：川島書店.
- _____ (1994). *自己實現の達成*. 日本：大日本圖書.
- _____ 監譯(1996). *健康な人格*(D. Schultz, *Growth psychology-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1977). 日本：川島書店.
- 依田 新(1977). *青年心理學*. 日本：培風館.
- 村上 仁(1951). *異常心理學*. 日本：岩波書店

<Abstract>

**The study on well-marked characteristics
of an integrated personality**

Ko, Myoung-Kyou

An integrated personality is the healthy personality with high efficiency that ever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is dynamically systematized under the unity of the function of the self.

Overt and concrete characteristics shown in an integrated personality can be divided into five points as below :

- ① An integrated personality has complete absorption in its work.
- ② It shows a strong independent attitude
- ③ It feels a great deal of responsibility for the way of speaking and behaving.
- ④ It has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future.
- ⑤ It reveals freely its true self.

Consequently, a person with such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s self-realizer who is mentally healthy and fully functions.

Also, such person is a tension-increase model, not a tension-reduction model.